

- 三五、作鞋圖 李信欽
- 三六、風俗書帖 金弘道
- 三七、耕織圖屏風 筆者未詳
- 三八、陵行圖(國葬圖) 筆者未詳
- 三九、甲申舟中 鄭 欽
- 四〇、平生圖屏風 安中植
- 李洪根氏藏
- 國立博物館藏
- 서울大博物館藏
- 全濟玉氏藏
- 安仁子氏藏
- 金承鉉氏藏

◎ 始興郡 新東面 支石墓 調査

金武龍氏가 調査報告한 바에 依하면 同面 良才里와 牛眠里에 各各 支石墓가 있다고 한다. 良才里 所在 支石墓 五基는 大略 不整 五角 形狀을 이루었고 型式은 北方式인데 크기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蓋石長	蓋石廣	厚	足數
一號 四·五 m	二·六 m	〇·四五 m	一個
二號 二·四五 m	一·四 m	不明	不明
三號 三 m	二·二五 m	不明	不明
四號 三·六 m	三·四 m	〇·七 m	不明
五號 二·三 m	一·九 m	〇·三 m	不明

또 牛眠里 所在 支石墓는 北方式 型式으로 足石은 二個이며 蓋石長 三 m、廣 三 m、厚 〇·五 m、足石高 〇·七 m、支石高 一·二 m 이고 石室의 長廣은 一·七 m × 一·三 m 라 한다.

— 第二卷 第五號 通卷十號 —

保寧 聖住寺址의 中門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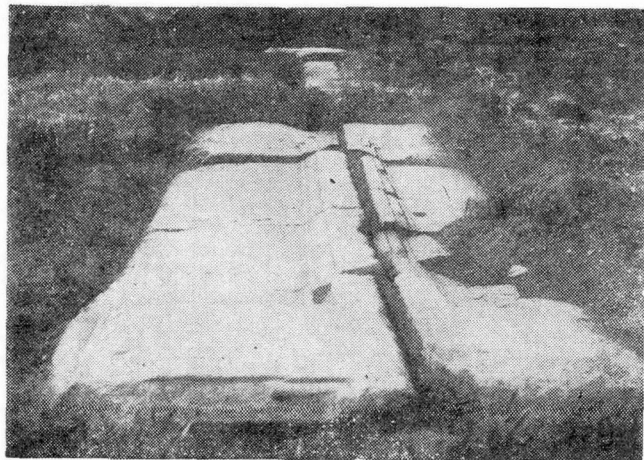
李 殷 昌

忠清南道 保寧郡 嶺山面 聖住里에 寺刹 遺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羅末 無染大師가 開創하였다는 聖住寺다. 곧 西南便만이 열리고 此外 三 面은 山이 屏風처럼 둘러 있는 聖住洞盆地가 있는데 寺址는 이 洞口안에 앞에는 溪水가 흐르고 뒤에는 높은 山이 臨迫하여 있는 一帶를 占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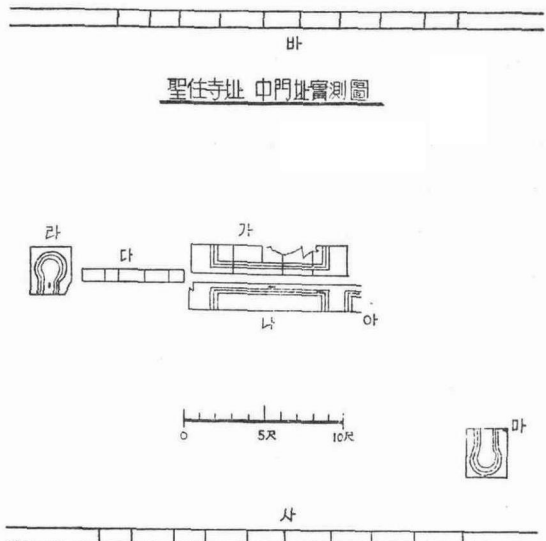
였은 즉 周圍 約 七 百 m의 石築城郭안 에 面積 約 九千坪 에 達하는 伽藍址 다. 伽藍正面을 向하 여 城안을 들어서자 中央五層石塔 앞에 中門이 認定되는데 石塔에서 約 四十餘 尺 正前에 耕作者들 에 依하여 中門址의 一部를 露出시켰고 磚石、礎石、築臺石 等은 大部分은 없어 졌으며 겨우 插圖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圖面 ㉔石은 門內 側、㉕石은 門外側의 正門「門地枋들」로、 各各 秀麗한 層級線

으로 區劃하고 있어 ㉔石과 ㉕石 사이는 兩開 門扉가 닫히게 되었던 것 으로 推測된다. 그리고 이 「門地枋들」(㉔石의 ㉕部分에 層級線表示의 區劃線郭一部分가 보임으로써 東脇門과 西脇門이 있어 各各 中央正門의 方式과 같은 「門地枋들」이 連續數設되었으리라고도 생각되나、現存하는 構造를 仔細히 살펴보면、西側은 ㉔石列로 中央의 正門과 같은 樣式을 가진 「門地枋들」을 認定하기 어려우므로 차라리 西脇門이 없이 中央에만 通할 수 있는 門이 열리고 西脇間은 門이 아니라 或 仁王像 等の 配置가 있 었거나 않았던가 한다. ㉔와 ㉕의 石列은 이 中門의 築臺石이니 元來는 四周로 ㉔와 같은 築臺石이 둘러 있고 그 안으로는 床面을 磚石으로



聖住寺址 中門址(東側에서 본 門地枋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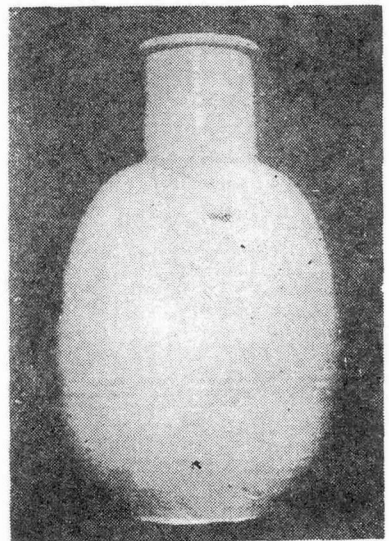
같은 方向의 礎石이 있어 亦是 下枋이 通하고 壁으로 되었음이 推測된 다。以上 推定되는 것을 復言하면 마치 佛國寺 紫霞門과 같이 六間門으로 推定되는 것이며 또 中間 西側으로 다시 長廊이 連續되었던 모양이다。

李朝白磁大型長頸壺

全 壺 罈

題하여 李朝白磁長頸壺라 하였으나 큰 瓶으로 보아야 좋을지 길쭉한 큰 항아리로 보아야 좋을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두가지 名稱을 합하여 큰 병항아리(大瓶壺)라고 부르고 싶은 巨大한 珍器로서 別로 보지 못한 것이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이 항아리는 넓은 푸른빛이 섞인 光澤 있는 灰色釉藥이 壺全體에 두껍게 씌워졌으며 큼직하고 두툼하고 묵직한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溫厚壯重한 君子를 對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圓筒型의 굽고 긴 모가지 아래에는 俗稱 고구마型 항아리가 連結되었는데 넓고 얇은 굽다리가 달려서 매우 安定된 感覺을 주고 있다。

全體의 均衡이 잘 잡혀서 조금도 不自然한 美가 없으며 精巧한 맛이 전혀 없는 代身 淳朴하고 恬適한 氣品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 항아리는 처음 圓筒型의 口頸部와 어깨로부터 胴體上半부와 胴體下半부로부터 굽다리까지를 三分하여 만든 다음에 이 세 部分을 合하여 連結燒成한 것으로 連結된 마디마디 釉藥이 들쭉 고여서 아래로 흘러 내려온 맛이 더욱 興味가 있어 보이며 圓筒型의 口頸部와 胴體下半部에는 數條의 陽刻橫線을 平行으로 은은히 둘러서 單調로운 大型壺에 適當한 變化를 나타내고 있어 얼른 보기에 는 크기만 하고 乾燥無味한 항아리 같이 보이나 불수록 韻致가 나는 優秀한 作品이라고 하겠다。

서울 近郊出土로 傳해지고 있는 이 항아리는 본래 무엇에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으나 花瓶 或은 酒器로 使用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十七、八世紀頃 京畿道地方 官窯産으로 짐작된다。

- 全體高 四九 cm 最大徑 三二 cm
- 壺口徑 一三·五 cm 모가지高 一一·五 cm
- 굽다리徑 一五 cm 굽다리高 一·四 cm